

타문화 선교현장에서의 기독교상담

안 경 승 교수
(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타문화 선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독교상담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독교역사를 통해 선교는 다양한 기능적 사역과 함께 하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상담 역시 선교사역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타문화 상담의 발전과 함께 구체적인 타문화권에서의 상담사역의 방법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런 타문화 현장에서의 기독교상담의 중심목적으로 복음전파(구원상담)를 두었다. 구원을 준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예비상담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치유상담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용점을 찾아보았다. 예비상담에서는 경청과 관계형성을 강조하였고, 구원상담에서는 회개와 회개에 이끄는 인간의 죄와 수치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분별하고자 했다. 치유상담에서는 기존의 기독교상담이 타문화권에서 어떤 이해와 준비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제안점을 나누었다.

중심단어 : 타문화, 기독교상담, 예비상담, 구원상담, 치유상담

I. 여는 글

기독교선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설득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¹⁾ 반면에 기독교상담은 삶의 문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나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권면 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²⁾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역 중의 하나인 선교와 상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보다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다. 선교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인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신다(마 16:26).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온 역사를 통해 섭리하신다.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선교이다. 그리고 상담 역시 그 관심을 사람에게 두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이를 통해 사람을 지혜롭게 돕고자 한다. 그 사람이 기독교의 전통을 통해서 허락된 영적 자원으로 치유 받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 피조된 인간의 참 모델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의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 선교와 상담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선교현장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상담자의 긍휼의 마음과 상담의 기술과 방법을 필요로 한다. 상담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목적 역시 내담자가 구원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풍성케 하는 선교적 활동을 담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상담이 선교현장에 필요한 근거를 설명하고, 둘째, 선교의 실제현장에 상담적인 주제들이 어떻게 유용한지를 보이는 일이다. 그동안 선교와 상담이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현장에서 가능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상담 방법(예비상담, 구원상담, 치유상담)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II. 펴는 글

1. 선교와 상담

선교학에서 초기부터 관련학문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것이 인류학

이었다. 인류학의 입장에서 사회학과 인류학을 심리학에 접목시킨 Ralph Linton과, 심리학과 인격발달을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Marvin Opler가 있었다.³⁾ 심리학 내에서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에 프로이트학파의 심리학자 Alfred Adler가 인간심리와 주변환경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현실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하고자 하는 관심과 욕구가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 이후에 Karen Horney, Erich Fromm, Harry Stack Sullivan에 의해서 사회심리학을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와 개인행동 사이의 관계와 문화에 따른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이론들이 발전하였다. 인류학적 심리치료, 심리학적 인류학, 타문화 심리학, 문화심리학, 민족심리치료, 문화와 성격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상담 분야에서는 타문화 상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선교학자인 Hesselgrave가 1985년에 타문화 상담을 선교에 적용하는 책을 내 놓았다.⁴⁾ 목회상담학자인 Augsburgers는 다양한 타문화 상담 주제에 대한 목회상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라는 책을 1986년에 출판하였다.⁵⁾ Howard Clinebell과 Howard Stone이 공저한 Cross-Cultural Counseling 는 실제적 타문화 현장실례들을 중심으로 저술되었다.⁶⁾ 기독교상담학자인 Gary R. Collins는 타문화 상담 연구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상담에 있어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상담자가 현재 타문화 상담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성경을 기초한 어떤 상담적 접근방법도 이 분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⁷⁾

Collins는 타문화 상담의 연구 및 실천분야로 여섯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선교 다시 말해 주님의 대위임 명령과 상담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둘째, 신학, 심리학, 인류학, 커뮤니케이션학 같은 분야의 올바른 근거가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의 개념,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는 문화의 영향, 그리고 서구와 비서구 문화들에서의 상담이론들과 실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성경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설득력 있는

상담접근방법의 개괄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다섯째, 타문화 문제의 분석, 해결점, 제안, 상호연관 기술 등에 대한 케이스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문화가운데 기독교상담이 격려되고 확대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실제선교현장과 상담의 관련은 해외 선교사 선정의 과정에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Daring이 1920년 후반에 해외 선교지에 파송하는 선교사 선정과정에서 심리도구를 최초로 활용하였다.⁸⁾ 이후 지속적으로 선교사의 선정, 그들이 타문화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 고국에 돌아온 이후의 재적응에 상담의 도움이 있게 된다. 주로 성격측정과 심리적 문제점 도출 등이 이루어지는, 상담을 통한 임상적 차원의 적용이었다. 점차 선교단체들 역시 여러 분야에서 상담적 접근의 유용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외국에 있는 미션 학교나 선교지역에 있는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상담, 문화적 충격에 따른 정서적 문제, 선교지에서의 부부 및 자녀문제, 재입국 후 사회적응과 가정문제가 주된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기독교상담 분야에서 타문화 사역현장의 상담에 대한 서적이거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Collins가 말했듯이 비록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상담에 있어서는 “문화적으로 자기세계에 갇힌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⁹⁾

2. 선교와 예비상담

Hesselgrave는 타문화 선교지에서 가능한 타문화 상담의 세 유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에 중점을 두는 상담, 둘째, 회심에 중점을 두는 상담, 셋째,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성숙시키고 증진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상담, 넷째, 헌신과 봉사에 중점을 두는 상담이다.¹⁰⁾ 본 논문에서는 회심에 중점을 두는 구원상담을 중심으로 회심 이전과 이후에 상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편의상 예비상담, 구원상담, 치유상담의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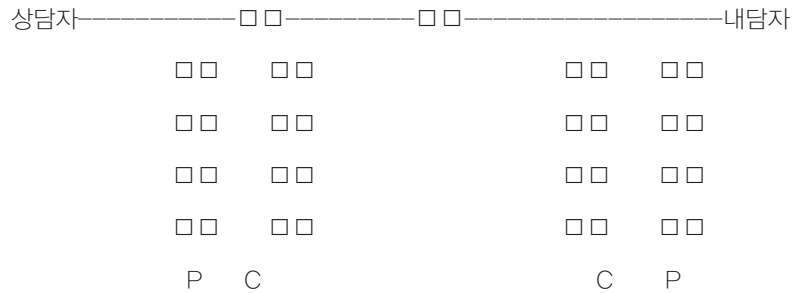
선교전문가에 의해 선교지 형편에 부합되는 선교전략의 한 형태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선교현장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선교형태로 관계선교를 들 수 있다.¹¹⁾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관계를 수립해서 친구가 되고 신뢰를 구축해 가고자 하는 시도를 일컫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전 세계인구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선교전략상 관계선교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¹²⁾ 관계선교는 가족과 같은 연대감을 갖게 하면서 도시인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채워 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된다. 도시 구조속에서 개개인의 겪는 외로움과 정서적인 불안감, 영적 황무함을 치료하고, 소속감과 위로와 내적 변혁을 일으키는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선교사와 구성원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상자와 일체감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복음전달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복음전파자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힘 쓴다. 이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전달해 준다. 외적인 모습과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내적인 마음에 있어서는 교류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감정과 생각의 공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만남이다. 기쁜소식인 복음은 주님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과 같이 인격적인 만남을 매개체로 삼고 있다. 효과적인 복음전달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적절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듣는 자가 전하는 자를 한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의 메시지 역시 수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맺어 가는 일은 그 성격상,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삶을 나누는 일이고, 어떤 일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고 어울리고, 집을 방문하고, 우정을 맺고, 마음과 삶으로 그들과 하나 되는 노력을 통해서 성취해 간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는 것(고전 9:22)”이 상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과 훈련이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상담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복음전도를 위해 예비한다는 의미에서 예비상담이라 하였다.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과 관점, 신조와 기대감을 갖고 상담에 들어간다. 이것은 아래의 그림 상에 보면 P로 표시된 일종의 개인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상담자를 형성한 문화적 가치(C)는 상담자의 문화에서 수용되는 가치관과 생각, 견해를 의미하는데 두 번째 장벽을 형성한다. 이점은 내담자에게 있어서도 같고 내담자 편에서 경험하는 장벽이 된다. 의사전달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두 가지 장벽을 통과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¹³⁾



이런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담은 우리가 불신자와 접촉하여 일종의 치유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훈련하게 해 준다. 상담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목표를 라포(rapport)라고 명명하였다. 상담에서 이러한 친밀감은 만나는 대상으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할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담자가 그들을 감정의 정화, 감정의 분출로부터 행동의 단계로 이끌어 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상담관계 자체가 상담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그 토대 위에 상담자는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 상담과정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선교현장에서도 예비상담의 과정에서 신뢰와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관계 수립의 기술을 개발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보편성, 문화적 차이, 개인의 독특성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내담자를 포함해 사람들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문화에 속한 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같은 측면(보편성)이 있고, 일단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측면(문화적 차이)이 있으며,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은 측면(개인의 독특성)이 있다.¹⁴⁾ 타문화 상담자는 이런 세 분야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선택하여 내담자와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첫째, 보편적 영역에서는 타문화 현장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세계관(토속신앙,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불교, 기타) 내지 무교적 세계관(세속주의, 자연주의, 유물주의, 인본주의 등)을 알아야 한다. 국제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이제 선교지는 지역적 개념에서 문화적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 문화에 뿌리 내린 전통 종교의 영향만이 아니고 세속적인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둘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면서, 피상담자가 살고 있는 생생한 환경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 내담자 문화가운데 통용되는 언어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습득하며,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질, 가치관, 윤리적 통념들에 익숙해야 한다. 타문화 상담은 각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들의 증상과 원리 그리고 특별한 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염두에 둔다. 선교학자인 Hiebert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에 어려움과 긴장이 있음을 인식하고 배제된 중간상태를 이해하는 어떤 틀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¹⁵⁾ 그는 말하길 종교와 과학이라는 문화적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수준에 주의할 것을 말한다. 상호 간에 배타적인 종교와 과학을 살펴보지 않으면,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셋째, 개인의 독특함을 이해해야 한다. 성격과 기질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이 속했고 지금 속해 있는 가정을 포함한 개인적 배경과 신체적 요소들, 내담자의 필요, 동기, 희망, 공포, 동경, 가치들을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이

해의 과정과 근거 위에 상담자는 예비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복음을 제시할 기회를 찾게 된다.

2) 관심과 경청

실제적인 만남의 현장은 구체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단지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고, 타문화 사역자의 영혼에 대한 돌봄에 기초한 관심과 경청은 예비상담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첫째, 관심이란 불신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관심과 흥미를 이야기하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의미한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직,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그 밖에 많은 행동과 표현들이 이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보편성, 문화적 차이, 개인의 독특함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것을 관심을 표명하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구와 내면적으로 그 요구를 가져오게 한 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표면적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접촉점을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다. 더 나아가 그런 요구를 하게 한 인간의 필요가 무엇이지를 이해해야 하고 이것이 더 설득력 있고 공감있는 관심을 표명할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의 결혼을 통해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안전과 사랑과 성(性)의 욕구를 채움 받기 원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결국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 여인의 문제와 방향이 결국 어떤 것보다 더 우선되면서 근본적인 영적인 필요에 기인한 것임을 간파하신 것이다. 더구나 이 여인은 죄로 인해 가려져 있으면서, 진정한 자기가 절규하고 있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끔 인도하셨다.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미와 방향에 대한 욕구와 관계와 영향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¹⁶⁾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문제, 욕구는 그 깊은 뿌리가 죄와 관련이

있다. 자신이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고, 기본적 욕구나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죄의 실체가 깊이 인간현실에 뿌리내려져 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이런 한계와 욕구와 갈망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 동기들을 지적해 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접근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한 지역의 주민들은 공통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경우, 사람들에게 의해 정죄 받았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유대인 사회 내에 알려져 있었다. 다른 이들에 의해 따돌림을 받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찾아 나셨다. 사랑과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통찰력이 있으셨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버림을 받은 한 인생을 살려 낼 수 있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이에 근거한 관계수립이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니었고, 만날 사람을 아는 상태에서 만나셨다. 각 사람에 대한 접근 또는 만남을 위해, 먼저 그 개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경청이다. 중국에 있던 한 선교사가 어느 마을의 소문난 반기독교 지도자를 한 번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고지식한 유교 신자요 고전학자였고, 그의 마을에 새로운 사상을 전하는 기독교단체를 심하게 반대하였다. 그 선교사는 몇 마디 간증을 하려 했지만, 그를 초대한 주인은 한 시간 반 내 내 서양인과 서양의 관습들을 비난하면서, 대화를 주도해 갔다. 그 선교사는 모임이 마치고 실패의 마음으로 되돌아 왔다. 그가 느끼기에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주가 영광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전해 준 소식은 놀랍게도 이런 것이었다. “이제까지 자네가 한 설교 중에 가장 훌륭했어! 어제 밤 그 학자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네를 칭찬했다네. 자네가 너무 겸손하고 참을성 있게 그가 한 모든 말을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자네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가 오늘 밤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교회에 올 것이네”¹⁷⁾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는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경청의 유익 때문이다. 선교학자 Lingenfelter와 Mayer는 이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잠시 동안 자기의 문화를 포기하고 어린이처럼 배우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타문화 사역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기독교신자는 나름대로의 기독교적 생활방식을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가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발 앞에서 아이처럼 배우기를 시작해야 한다.”¹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그들에게서 배우고 듣는 것도 중요하다. 듣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관심 있어 한다는 의미있는 상담적 행동이자 관계를 맺는 기술이다.

이런 경청이 주는 유익은 첫째, 나의 정성과 정신을 집중해서 경청해 주는 모습이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중감의 가장 좋은 구체적인 증거이다. 경청을 통해 관심과 존경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관심 받고 있음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 둘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귀중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귀중한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셋째, 내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없으면, 아직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혹은 벌써 아는 것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이 그들의 풍습과 일상에서 유추된 것이고, 그들의 형편에 적합하고 적절한 것이라면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생각함을 알고, 자신들의 독특한 풍습과 사정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을 보며, 기꺼이 내 메시지에 담긴 마음을 읽을 것이다. 진심으로 경청해 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랑이자 관심의 표현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상담자의 노력을 타문화 상담의 분야에서는 *interpathy* 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¹⁹⁾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동정(*sympathy*)이나 감정이입(*empathy*) 같은 상담적 용어가 있다.

동정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지켜보며 생기게 되는 나의 자연적인 감정적 반응이고, 주로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해 보았다는 공통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정도와 깊이는, 그것이 내 경험과 얼마나 공유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심정에 대한 나의 의도적인 감정적 반응이고, 공감의 과정은 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으로 발전된다. 감정이입으로 나는 상대방의 느낌, 생각, 인식, 긴장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비록 내가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전적으로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나눌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상담자의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 문화적 전제, 가치, 인식체계를 가진 동일한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다.

반면에 *interpathy*는 다른 문화, 세계관,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일컫는 것이다. 공감의 과정은 감정이입이라는 감정적 단계에 앞서, 상대방이 신뢰하는 것, 보는 것, 가치관을 먼저 충분히 인식하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먼저 다른 생각을 배우고자 하고 다른 가치관을 소유해 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인식의 전제를 헤아려 보고자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적 작업의 바탕 위에서 감정이입의 과정을 더해 가는 것이 타문화의 사람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관계를 수립해 가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는 것이다. 같은 문화적 전제, 가치, 견해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타문화권의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 보는 상담적 훈련의 내용이다.

이런 접근방법은 이미 선교학의 이론과 선교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성육신적 원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성육신적 선교사'를 이야기하면 Hibert는 이렇게 말한다. "자문화중심주의의 해결책은 감정이입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와 그들의 습관의 진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문화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가는 대상지역 문화에서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²⁰⁾

예비상담의 과정이 사랑을 동반하는 지속적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인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 작업이 쉽지 않고, 땀의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수고를 통해 바른 인간이해가 이루어지고 그 바른 이해에서 바른관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복음을 상대방에게 적절한 시점과 적절한 방법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게 된다.

3. 선교와 구원상담

기독교선교의 핵심 되는 사역은 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회개와 죄 사함을 받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담에 있어서도 결국은 좋은 말로 표면적 만족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영적 갈등을 채워줘야 한다. 안으로 깊이 굽아가고 있는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적 원인에 대한 치료를 요구한다. 이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앞에 죄 사함과 회개의 구원역사가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타문화권에서 구원상담을 하는데 먼저 이해해야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와 죄사함으로 이끌게 하는 수치나 죄의 이해이다. 죄를 온전히 인식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궁극적인 속죄의 은혜를 알 수 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구속주를 붙자고 생명을 얻으며, 그런 인생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²¹⁾

문화에 따라 이런 수치와 죄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신 안에 잠잠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양심은 자기 자신을 꾸짖고 고발한다. 여러 모양, 여러 색깔로 다르게 드러나지만 인간이 가진 죄의식은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에 각 문화적 특성에 따라 그것을 독특한 유형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돌출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 죄의식에 대한 위로를 얻는 일종의 보상의 행위를 하는 문화도 있다.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체면과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희생적 행위를 치루어서 속죄하려는 경향을 가진 지역도 있다. 또는 부끄럽고 죄스런 일에 대해 자기에

게 자학과 자책을 가하는 문화도 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고통스러운 죄의식이다.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각 문화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어적 행동들이 있다. 먼저 밖을 향한 비난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투사(projection)를 하거나, 외부적 대상에 징벌의 방향을 전치(displacement)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무시하거나 경감시켜 보려는 행동이다. 또한 합리화로 대응한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은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행한 것들의 심각한 본질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환경 탓을 하거나, 과정보다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된 잘못된 수단을 합리화한다. 진리와 진실이 합리화의 과정을 거치며, 실리주의와 상황윤리 등으로 대치되고 그런 가치관들이 어디서나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다양한 모양으로 이런 방어기제가 여러 문화안에서 뿌리 받혀 있다. 조금 고급화 된 문화에서는 현대사조의 영향으로 인해 죄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죄라는 개념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심리 또는 감정으로 취급해 버리는 심리적 환원을 시도한다. 이것이 거짓이면서도 현대화가 되어 가는 많은 제3세계 문화권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 형태로 죄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다.²²⁾ 물론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원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보편적 경험과 관계의 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통념과 의견의 범정,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죄의식이다. 이것은 사회적 격식이나 가족과 사회의 관습을 지키는 것을 어기고 실패함으로써 오는 관습적 죄의식이다. 점점 사회생활의 범위가 넓어져 가면서, 가족과 이웃, 친구, 타인들이 갖는 타부(Taboo)와 관습으로 인한 죄의식도 확대되어 간다. 아프리카 부쉬 족장의 어머니가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를 낳고 그들을 야생 개에게 던지지 않으면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모든 문화에서, 그 구성원이 다른 이들과의 삶을 공유함에 있어 공통된 요구들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그 당사자는 외적으로 체면을 구기고, 내적으로 죄의식을 느낀다.

두 번째 죄의식은 비실재적인 감정으로 인한 죄의식이다. 소위 말하는 신경증적인 죄의식이다. 이 죄의식은 마음(종종 상상)의 범정에서, 비평적인 자기자아가 어떤 때는 가장 관대한 판사가 될 수도 있지만, 무자비하고 무정하게 자신을 정죄해 갈 때 생기는 병적인 현상이다. 어떤 개인은 자신은 내적 재판을 이끄는 능력이 있고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생각을 고치고, 죄의식에 대한 그들의 감정들이 솔직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다른 개인은 내적 범정의 판사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과대한 판정을 선고하고 비난받을 만한 것들을 애써 반복하고 되풀이하며 죄과들을 만들어간다 거기서 빠져 나올 정신과 힘도 없이, 강박적으로 쇠약해 간다. 죄의식의 목록이 가득 차게 되고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정죄 한다.

세 번째는 분명한 윤리적, 신앙적 죄의식이다. 범죄로 인한 행위들, 태만으로 인한 부족함들, 이런 것들로 인한 실제적 죄의식이다. 이것은 사람이 배운 도덕적 가치관과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통찰하여 이런 모든 역사적, 실제적 윤리와 삶의 기초를 제공한 성경의 진리 앞에서 드러나는 죄의식이다.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다(롬 3:23). 그리고 죄는 인간의 정신과 삶 속에 긴밀하게 얽혀있다.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 이런 죄의식의 실재를 보면서 각 문화와 속에 뿌리 내린 죄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사회, 시류(時流), 보편적 통념, 허구적 과학논리 등등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내담자의 모습속에 자리잡고 있는 관습적, 또는 비실재적 감정으로 인한 심리적 죄의식의 한계를 분별하고 더 깊은 의미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통념, 관습, 기준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판단이다.²³⁾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을 덧입게 된다.

상담의 현장에서 이런 죄의 일그러진 다른 얼굴들과 종류들을 이해한 다음에 상담자가 취하는 대화적 기술이 있다. 즉 내담자의 문제와 그 이면의 죄의 현실과 대면(對面)하는 네 가지 상담의 접근방법이 있다. 침묵, 숙고(熟考)하게 하는 것,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대면이다.²⁴⁾ 각각의 방

법은 상대방의 문화환경, 그 동안의 관계수립의 정도,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한다. 침묵과 숙고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드러운 대면의 한 형태이다. 특히 체면문화가 강한 문화권에서는 침묵을 통한 의사소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을 어느 정도 세워주면서, 그러나 그의 죄로 인한 행동과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자신의 죄를 전가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행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며 다가선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돕고, 상대방이 선택한 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적 방법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가르치셨고, 듣는 이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담겨진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질문을 던지는 방법은 좀 더 직면적 방법이다. 접근방법에 있어 최소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자신이 옳다, 그르다 라고 주장하는 권리를 존중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한 산파술적인 대화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직접적 대면의 방법은 상대방의 가치 위에 나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모든 가치 위의 가치이고 복음은 모든 기쁜소식 중에 가장 기쁘고 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선포되고 직면된 말씀은 그들 심령에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최근에 한국을 포함한 유교적 영향을 받은 문화에서는 직면적 방법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 피력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유교문화 자체가 가치와 서열이나 위계에 따른 역할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상담자를 어른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관점이다.²⁵⁾ 둘째, 유교권의 피상담자는 구조화된 상담 장면을 선호하고 지시적이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상담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말한다.²⁶⁾ 이런 직접적 대면의 방법이 적당할 때도 있지만, 매우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죄의 인정과 고백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복음서를 읽다보면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위에서 언급

한 죄를 대면케 하는 네 가지 접근방법 모두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구원 상담에 있어 이런 신중한 접근방법들과 함께,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전하는 자의 공감(共感)이 담긴 대면방법이다.²⁷⁾ 예수님은 인간에게 내려진 원죄의 무거운 짐을 알고 계셨다. 인간역사를 통해 점철(點綴)된 죄의 결과들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봐오셨다. 우리가 경험한 동일한 시험들을 체험하셨다(히 4:15). 예수는 죄의 짐의 그 엄청난 무게와 피조물의 고통을 깊게 공감하셨다(마 11:28-30).

그리고 겸손하고 은유하신 그분은 그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놓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동일한 도전이 기독교신자에게 주어진다. 상대방의 죄를 대면하고자 하는 때에도, 자기 자신 안에 공감과 동정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진심이 관계를 수립해 가는 예비상담과, 복음을 전하여 죄를 직면하고 죄 사함의 필요를 선포하는 구원상담의 과정을 통해 순간 순간 진심으로 전해지게 될 때, 회개와 고백이 진실하게 될 줄로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대면적 접근방법과 함께 은혜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⁸⁾ 즉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는 접근방법이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사라는 한 인격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의 생각과 감정을 조사해 보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이 이기적인 죄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보도록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타락과 부패의 한 흐름 속에 자신도 속해 있음을 보게 한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한계와 아픔을 붙잡고 알아 감을 통해, 은혜로우신 구속자에 대한 필요를 도전하고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

4. 선교와 치유상담

구원받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가는 것이다

(롬 8:29, 고전 10:31). 이것은 선교사의 사역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상담의 목표 역시 단지 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다. 궁극적 목표는 일시적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어야 하고 단순한 정신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건강이 아니라 영적 건강이어야 한다.²⁹⁾ 이를 위해 선교현장에서 사역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치유상담이다.

실제로 선교사가 만나게 되는 타문화와 종교권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겪게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수반된다. 대개는 그가 속한 교세권에서 일탈되어지는 고통과 소외의 부가적인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적으로는 기존 가치관과 신념체계와의 갈등, 외적으로는 핍박과 위협이 도사리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시시각각 맞게되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미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상처에 대한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치유의 일을 위해서도 선교사는 부름을 받았다.

이 점을 선교학자의 시각은 이렇게 표현한다. “선교사의 일을 전도(evangelism)라 할 때, 선교를 축소하여 생각할 위험이 있다. 선교는 전도 이상의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전도라는 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³⁰⁾ 성경안에서 전도라는 중심사역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활동과 관계되는 말들이 소개되고 있다.³¹⁾(표 1)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사역을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담적 진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시도하는 상담학자들에 의해 사도들의 사역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가 남을 돕고 변화에로 이끌고자 하는 상담사역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Jay E. Adams 는 위에 소개된 사도의 활동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권면하다(noutheteo)’ 라

는 말이 기독교상담에 적절한 근거임을 말하며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을 시작했다.³²⁾ 존 카터(John Carter)는 반면에 성경적 상담은 권면이라는 점과 함께 표에 언급되어 있는 '위로한다(parakaleo)'를 근거해서 세워진다고 이야기한다.³³⁾

표 1. 선교활동을 지칭하는 표현들

Syngcheo	확고하게 하다	행 9:20
Symbibazo	증명하다	행 9:22
Diegeomai	선언하다	행 9:27
Syzeteo	반박하다	행 9:29
Laleo	말하다	행 9:29
Dialegomai	이론화 하다	행 18:4
Peitho	설복하다	행 18:4
Noutheteo	권고하다, 경고하다	행 20:31
Katecho	알리다, 지도하다	행 21:21
Deomai	구하다	고후 5:20
Elengcho	꾸짖다	딤후 4:2
Epitimao	나무라다	딤후 4:2
Parakaleo	위로하다, 간청하다	벧전 2:11

치유상담을 타문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세계관과 심리학으로부터 기인해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특별한 치유방법을 알아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문화의 심리적, 상담적 이론들과 정신치료의 방법들, 상담과 돌봄의 기술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³⁴⁾ 둘째, 주어진 문화와 성경의 조명 아래 내담자의 문제들을 분석한다.³⁵⁾ 셋째, 그 문화 내에서 상담자로서 자신의 역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별한다. 넷째, 문화에 민감한 상담적 접근 방법을 발전시킨다.

선교지에서 회심자가 생겨나고 저들이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모든 과정에서 상담적 활동을 통한 '서로 짐을 지는' 사역이 펼쳐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도 타문화 사역자는 부름 받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저들이 구

원을 얻고 구원을 완성하도록 돕는 회복과 치유의 사역에 상담이 위치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문화적 변화와 이질감에 민감히 대처하고 이를 이해하는 타문화 상담가로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물론 일반적인 상담적 기술이 요구되어질 뿐 아니라 이에 덧붙여 치유상담을 위한 타문화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타문화권의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상담자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기본적인 전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상담자 자신의 문화권에서 학습되어진 전달자의 가치관과 기독교사역자로서 붙잡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적 가치관을 포함한다. 또한 수용자인 상대방이 다른 가치관과 전제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해는 타문화 상담자의 지적인 통찰력과 감정적 인식에 내면화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성경의 가치를 내담자에게 부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타문화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독특성을 인정하고 그 다른 점을 분명히 알고 존중해야 한다. 셋째, 타문화 상담자는 한 인간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역사, 사회, 종교, 정치, 경제적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있고, 특히 인종갈등, 경제적 착취, 정치적 탄압, 역사적 비극, 종교적 편견 등을 인식한다. 개인의 인격과 인간관계의 정립에 있어서도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준 것을 분별한다.

넷째, 타문화 상담자는 자신이 습득한 상담기법, 교육, 사전 지식을 뛰어넘어 그 문화에 맞는 효율적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타문화 상담자는 지역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이라 과장하지도 않고 우주적인 것을 지역화시켜 평범화 시키지도 않는다. 동질감만큼이나 이질감을 존중하고 동화와 함께 독특성을 인정한다.³⁶⁾

III. 닫는 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은 상담을 요구한다. 상담이 이루어지는 만남은

선교를 지향한다. 이 점은 한 영혼을 만나고 우정을 맺어가며, 복음을 전파해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의 완성으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돕는 모든 사역의 구석구석에 상담과 선교의 협력의 활동으로 펼쳐져 있다.

어떤 때,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신적 기원과 그 복음이 펼쳐지는 구원사적 광대함에 가슴 벅차, 그 복음을 듣는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소홀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위치에 고양되고, 눈에 보이는 주변적 사업과 행정에 매달려, 그 대상이 되는 영혼에 대한 돌봄이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그 선포의 기쁨에 감격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듣는 이들과는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 됨의 경이로움을 고백하지만, 같은 동역자 끼리 반목하는 현장도 지켜본다. 당위성은 제시되지만, 그 목표를 버거워 하는 짓을 먹는 이들에게 제시되는 대안은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상담의 사명이다. 기술이나 훈련의 내용으로서 뿐만 아니고, 애정 어린 용납의 마음, 돕고 싶은 간절함, 섬기고자 하는 진실이 상담이란 이름으로 선교의 활동 안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Adams, Jay E.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Grand Rapids.: Baker. 1973.
- . *Ready to Restore: The Layman's Guide to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81.
- Augsburger, David W.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Philadelphia. NJ.: The Westminster. 1986.
- Carter, John. "Adams' Theory of Nouthetic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 1975).
- Clinebell, Howard, Stone, Howard, and van Beek Aart M. *Cross-Cultural Counseling*. Minneapolis. MN.: Fortress. 1996.
- Collins, Gary. *Effective Counseling*. Carol Stream, IL.: Creation. 1972.
- . "The Future of Christian Counseling," in *Helping People Grow*,

- ed. Collins, Gary R. Santa Ana, CA.: Vision House. 1980.
- Crabb, Lawrence J. *Understanding People: Deep Longing for Relationship*.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 Hesselgrave, David J. "Missionary Psychology and Counseling--A Timely Birth?" *Trinity Journal* 4(Spring 1983).
- _____. *Counsel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1984.
- _____. "Can Psychology Aid Us in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A Missiologist Speaks to Christian Psychologis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4 1987).
- Hibert, Paul G. "The flaw of the excluded middle,"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10, 1982).
- Hunter, William F. and Mayer, Marvin K. "Psychology and Missions: Reflections on Status and Need,"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4 1987).
- Lingerfelter, Sherwood G. and Mayer, Marvin K. *Minister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1986.
- McGavran, Donald 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i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 McMinn, Mark R.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Wheaton, IL.: Tyndale. 1996.
- Tan, Siang-Yang. *Lay Counseling: Equipping Christians For A Helping Ministr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1.
- Tournier, Paul. *Guilt and Grace: A Psychological Study*, trans. A. W. Heathcote, J. J. Henry, and P. J. Allcock. New York: Harper. 1962.
- Collins, Gary R. Innovative approaches to counseling. 정동섭역. 「창의적 상담접근법」. 서울: 두란노. 1997.
- Hesselgrave, David J.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채은수 역. 「선교 커뮤니케이션」.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8.
- Seamands, John T. *Tell it well: communicating the Gospel across cultures*. 홍성철 역. 「타문화권 복음 전달의 원리와 적용」. 서울: 세복. 1999.
-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 「문화 속의 선교」.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7.
- 강진령. "한국문화에서 상담활용의 비교문화적 관점." 「제4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극동심연분회. (2003. 4).
- 김성태. 「세계 선교전략: 교회사 속에 나타난 선교 전략과 사례 연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설기문.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동아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21(1993. 2).
- 안영권. "21세기 선교 전략으로서의 코이노니아 선교." 「신학과 선교」3권 (1999).

[후주]

- 1) Donal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3rd edi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90), 28-9.
- 2) Gary Collins, *Effective Counseling* (Carol Stream, IL.: Creation House, 1972), 73.
- 3) David J. Hesselgrave, "Missionary Psychology and Counseling--A Timely Birth?" *Trinity Journal* 4(Spring 1983): 73-4.
- 4) David J. Hesselgrave, *Counsel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1984).
- 5) David W. Augsburger, *Pastoral Counseling Across Cultures* (Philadelphia, NJ.: The Westminster, 1986).
- 6) Howard Clinebell, Howard Stone, and Aart M. van Beek, *Cross-Cultural Counseling* (Minneapolis, MN.: Fortress, 1996)
- 7) Gary R. Collins, "The Future of Christian Counseling," In *Helping People Grow*, ed., Gary R. Collins (Santa Ana, CA.: Vision House, 1980), 341-2.
- 8) William F. Hunter and Marvin K. Mayers, "Psychology and Missions: Reflections on Status and Need,"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4, 1987): 27.
- 9) Gary R. Collins, Innovative approaches to counseling, 정동섭역, 「창의적 상담접근법」(서울: 두란노, 1997), 158.
- 10) Hesselgrave, *Counseling Cross-Culturally*.
- 11) 안영권, "21세기 선교 전략으로서의 코이노니아 선교," 「신학과 선교」3권(1999), 114-45.
- 12) 김성태, 「세계 선교전략: 교회사 속에 나타난 선교 전략과 사례 연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94-5.
- 13) Collins, 159. Collins는 타 문화권에 체류하게 될 때, 겪게 되는 다섯 단계의 반응주기를 이렇게 소개한다. 첫째, 긍정적 수용단계, 둘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압감을 느끼는 단계, 셋째, 분노와 비판단계, 넷째, 적응단계, 다섯째, 새로운 상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관찰 단계 및 수용과 평가의 단계
- 14) David J. Hesselgrave, "Can Psychology Aid Us in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A Missiologist Speaks to Christian Psychologis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5(4 1987): 277-8.
- 15) Paul G. Hibert, "The flaw of the excluded middle," *Missi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10, 1982): 35-47.
- 16)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Grand Rapids, MI.: Baker,

- 1973), Lawrence J. Crabb, Jr., *Understanding People: Deep Longing for Relationship*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 17) John T. Seamands, *Tell it well: communicating the Gospel across cultures*, 홍성철 역, 「타문화권 복음 전달의 원리와 적용」(서울: 세복, 1999), 135-6.
- 18) Sherwood G., Lingenfelter and Marvin K. Mayer, *Minister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1986), 25-6.
- 19) Augsburger, 31.
- 20) Paul G. Hiebert,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 「문화 속의 선교」(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7), 114-40.
- 21) Hesselgrave, *Counseling Cross-Culturally*, 356.
- 22) Augsburger, 136-138.
- 23) Paul Tournier, *Guilt and Grace: A Psychological Study*, trans. A. W. Heathcote, J. J. Henry, and P. J. Allcock (New York: Harper, 1962), 67.
- 24) Mark R. McMinn,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Wheaton, IL.: Tyndale House, 1996), 137-52.
- 25) 강진령, “한국문화에서 상담활용의 비교문화적 관점,” 제4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한국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극동심연분회」(2003, 4, 26): 9-10.
- 26) 설기문,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 21(1993, 2): 45.
- 27) McMinn, 151. McMinn은 이것을 'empathic confrontation' 이라고 하였다.
- 28) 현대 기독교상담에서 이를 'redemptive psychotherapy' 또는 'redemptive intimacy' 라고 표현하고 있다.
- 29)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Equipping Christians For A Helping Ministr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1), 36-37.
- 30) David J. Hesselgrave,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채은수 역, 「선교 커뮤니케이션」(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8), 7-8.
- 31) Hesselgrave, 7-8.
- 32) Jay Adams, *Ready to Restore: The Layman's Guide to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Baker, 1981), 9.
- 33) John Carter, “Adams' Theory of Nouthetic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 1975): 143-55.
- 34) David J. Hesselgrave, “Can Psychology Aid Us in the Fulfillment of the Great Commission?” *A Missiologist Speaks to Christian Psychologists*: 278-9.
- 35)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제 20가지가 있다. 어떤 결정 시에 충고/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 우울과 가책/ 진로에 대한 고민/ 좌절/ 위기/ 실패/ 비애/ 기괴한 행동/ 불안, 근심, 두려움/ 다른 불쾌한 감정/ 가족과 결혼 생활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갈등 해결 시에 도움/ 상호 관계의 악화/ 마약과 술 문제/ 성적(性的) 곤란함/ 왜곡된 지각/ 정서 및 신체 문제/ 자살 기도/ 직장, 학교에서의 어려움등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Equipping Christians For A Helping Ministry*, 41
- 36) Augsburger, 20-1.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in the Cross-Cultural Mission Field

Kyung Seung Ahn
(Ph.D.,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Many missionaries and Christian workers are presently trying to act as helpers and healers to people who have ver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Christian counseling, however, fail to give a large enough place to cultural considerations in the mission field particularly.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cross-cultural Christian counseling in the mission field could be made more effective. To approach this discuss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ission and Christian counseling are discussed. Finally, conclusions to guide the practice of counseling in the mission field are drawn. The theory and practice for cross-cultural counseling ministry need to b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as well as human universals and individual uniqueness. Cross-cultural counseling is cultural activity that requires the open-mindedness and sensitivity of the practitioners to the cultural influence of both their counselees and themselves. Then, we try to apply the skills of Christian counseling to mission field to help the counselees in three ways--preparation counseling, salvation counseling, and healing counseling. Forgiveness for sin and power to change into Christ's image are the greatest needs of counselees. The gospel message is not complete without a clear statement of the fact and nature of sin and the need of the individual for salvation through Christ. Integrating counseling practice with biblical faith, we endeavor to assist counselees to be better equipped to live Christ-centered lives in service, vocation, and community. These core truths must infuse the cross-cultural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Kye words: Cross-cultural, Christian Counseling, Preparation counseling, Salvation counseling, Healing counseling.